

거짓 목사들을 피하라

성경말씀: 렘23:1-4, 9-12, 25-32

지난주: 예레미야의 고통, 그는 뼈 속에 갇힌 말씀으로 이겨냈다. 고등 종교의 특징(말씀), 기독교는 '말의 종교'이다. 말로 구원, 말로 성화, 말로 위로, 말로 심판, 말씀에 대한 확신
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: '목양자와 대언자들의 타락', 바른 말씀이 없을 때 양들이 죽음
예레미야 강해의 어려움: 목사를 향해 외쳐야 함. 고민이 됨. 뛰어넘고 싶음. '거짓 목사들을 피하라'
목자, 목양자, 목사

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관계를 '양과 목자'로 표현한다(시23:10).
양들의 특징: 목자가 없이는 결코 삶을 영위할 수 없다.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, 정치적 지도자를 주신다.
예수님 자신의 표현: 요10:11-15, 마9:35-38
특히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.

신약성경의 목자, 목사로 번역된 말은 동일한 말(포이멘)이다.

구약성경 렘23:1의 목양자들과 4의 목자들도 동일한 말(라아)이다. 목자, 목양자, 목사 동일한 역할
목양자(pastor) 즉 목사가 바로 서면 양들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불행하다.

렘23:1-2 설명, 지상에서 양들의 행복은 목사에게 달려 있다.

그런데 양들을 멸하고 흠어버리고 죽이고 먹는 목자들이 있다(23:1-2).

겔34:1-10, 11, 31 설명

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(2), 양들을 죽여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목자(3)
양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목자(4), 그 결과 양들이 짐승의 먹이가 됨(5),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함(6),
아무도 양들을 찾지 않음(6), 목자들에게 대한 심판(10),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하심(11),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, 양 떼는 사람이다(31).

예레미야의 심정

의로운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다(9). 시119:53,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로 인하여

돌보는 목자들이 타락한 결과(10), 백성의 심판(12)

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들(13), 남왕국 유다의 대언자들(14)

하나님의 경고

그런 대언자들 즉 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(16).

그들이 하는 일(17), "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한다."

그들이 바르게 말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?(22), 백성의 회개

하나님의 전지하심(23): 먼데 있는 것들도 다 본다.

온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(24).

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

직통 계시로 꿈을 꾸었다(25-26).

'천국 다녀왔다', '지옥 다녀왔다',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(마12:38-39). 믿음과 배치됨
이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다, 바알의 대언자들이다(26-27)

진짜 대언자와 가짜 대언자의 구별(28)

가짜는 꿈 이야기, 천국 지옥 이야기 등을 말한다: 다 주관적인 것이다.

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: 객관적이다. 모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다.

그 말씀은 불 같고 쇠망치 같다(29).

지저분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. 껍데기 겨를 태우고 알곡만 남긴다(28절, 마3:11-12)

딱딱한 마음을 부수어버린다. 그래서 그 마음을 모래같이 부드럽게 만든다(하나님의 원대로 쓰게).

가짜 대언자와 목사들의 심판

거짓 목사들은 성경에서 '개'라고 불린다.

그[이스라엘]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,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.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,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다.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(사56:10-11)

팔레스타인의 개들은 늑대처럼 포악한 존재들이다. 피를 먹고(아합, 이세벨) 사람도 죽여서 먹는다. 그래서 개라고 불리는 것은 대단히 큰 수치이다.

그 블레셋 사람[골리앗]이 다윗에게 이르되, 네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?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(삼상17:43)

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.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.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(시22:14-16).

여기의 개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(서기관, 바리새인, 율법박사 등).

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.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(빌3:2-3).

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.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.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(행20:28-29)

여기의 개들은 거짓 목사들을 가리킨다. 이들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.

1. 믿음 + 행위를 가르침

2. WCC: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함(요14:6; 행4:12)

앞으로 이 땅에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세계단일종교가 세워진다: “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.”

2013년 10월 WCC 부산, 천주교, 정교회, 안식교, “추기경 옆에 앉는 자들을 유심히 보라.”

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.

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무슨 인위적인 일치가 필요한가?

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.

3.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(벧후2:1-2)

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‘개들’에 대한 심판 구절이 있다.

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(계22:15).

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최종 지옥인 불 호수에는 ‘개들’이 있다. 누구인가? 진짜 개는 아니다. 성경은 성경대로 본다.

따라서 성경대로 믿으면 계헨나 지옥에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들어간다.

그러므로 내 교회 목사가 개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.

교회 목사가 개로 판명이 나면 빨리 떠나야 산다.

계17: 마지막 때의 단일세계종교 음녀 체제,

계18:4-5: 내 백성이 그 음녀 체제에서 나오라.

그래야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 갈 수 있다.

“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적은 양 무리여, 두려워하지 말라. 너희 [아버지]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.”(눅 12:31-32)